

약속의 땅 I. 약속의 성취! 어디에 반응하고,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 점검하라.

1. 생명력

결국 모든 것이 생명력에 대한 문제이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말한다. 살아있는 존재의 확인은 '반응'이다. 응급실에 실려온 응급 환자를 확인할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반응'이다. 생명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 '반응'이 없는 것이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생명력에 대한 확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반응과 움직임이다.

(1) 나는 오늘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 반응은 관심을 말한다. 마음의 방향성이다. 신앙의 생명력을 점검하고 싶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 나는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내 인생의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3)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향하여 움직인다.

[에베소서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모든 지,정,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머리의 기능은 무엇인가? 명령 기관이다. 머리가 말하는 것에 몸의 각 부분이 반응하는 것이다. 머리가 없는 몸은 없다. 오늘 나의 신앙의 생명력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교회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 안디옥 교회 -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델

[사도행전 13:2-3]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를 보라. 안디옥 교회의 관심은 2절의 '성령이 가라사대'이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다. 성령께 반응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라. 진지하다. 진솔하다. 그 증거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이다.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자세를 말한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알았다.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종'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종은 어떤 자들인가?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이 아닌, 주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파송하여 보낸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조직관리로 본다면 불가능하다.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했기에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의 종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들인가? 외모와 능력과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

(1) 아브라함의 반응 -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열어가신다. 아브라함이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를 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문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반응이 그래서 소중하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반응)

(2) 다윗의 반응 - 하나님은 다윗의 반응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나타났다. 원리는 같다. 다윗이 반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다윗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다윗의 반응은 그래서 위대하다.

(3) 요나의 반응 - 요나를 보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을 향하던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나의 인생 한복판에 개입하셔서 물고기 배에 갇힌 요나의 반응을 들으신다. 연약한 요나의 반응과, 순종과, 니느웨를 향한 움직임이 니느웨에 부흥을 가져왔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된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와 함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요나 3:4-10]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지라 6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배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7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 옷을 입을 것ियो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하룻길을 외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인데 니느웨성 전체가 회개했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나는 오늘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3. 부르심과 반응

하나님의 일의 성취와 반응의 관계를 보았다. 하나님 일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이에 반응하는 자를 ‘부르신다’ 부르심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다. 제자는 누구인가?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특별한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다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명받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을 명심해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왜 이것이 대위임령인가? 이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회복이자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 슬픔, 걱정, 근심 없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9절을 특별히 보아야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제자를 찾으신다. 군중이 아니다. 회중이 아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마지막 사명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즉, 제자가 아닌 사람은 마지막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자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고기 잡던 어부가,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반응해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반응했다. 그리고 순종했다. 움직였다.

4. RE-open? RE- start?

망한 집의 문을 다시 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아웃백의 성공스토리) - 새로운 시작이란 아주 간단하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정렬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이다. 제자의 정체성 위에 서는 것이다.

5. 거룩한 부르심 - 소명을 발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다. 모두에게 정해진 약속의 땅이 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소명을 발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한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부르심이 있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6. 부르심의 확장

(1) 개인의 부르심 / (2) 공동체의 부르심 (가정과 일터, 교회) / (3) 민족, 나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부르심의 확장은 퍼즐의 원리와 같다.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없다. 퍼즐 한 조각의 모양은 다르다. (직업이 다른 것과 같다) 퍼즐 한 조각이 모여 있는 이유는 전체 퍼즐을 맞추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조이풀 성도 한 사람의 역할을 다양하게, 각 영역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전체 퍼즐이 있음을 명심하라.

7. 누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1:9] ~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마서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위의 말씀을 보라. 거룩한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이 위대한 일에 부르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다. 감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역에는 항상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이란? 부르심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인생이다. 가장 위대한 일에 나와, 우리 가족과, 일터와, 교회를 부르심에 감사하자. 그리고 반응하여 응답하자. 그리고 고백하자.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부르소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겠습니다. 미션 베이스와 영혼을 구원할 SRB를 통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